

성보박물관 운영 보물급으로

조계종 주최 세미나

문에서 "사찰성보박물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종단에서 성보 박물관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현재 각 성보 박물관의 관장을 맡고 있는 스님들은 몇 개의 박물관을 제외하고는 다른 소임과 겹친다든지 해서 사찰 내 지위가 모호하다"며 "별정직으로 박물관관직을 마련하는 등 신분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정부에 대해서는 이원화되어 있는 관리 체제의 통일안 마련을 지적했다.

'사찰박물관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할 홍선 스님은 무모한 성보박물관 건립 추진을 문제삼았다. 홍선 스님은 "정부 예산으로 일단 지어놓고 보자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농후하다 보니 개관하더라도 막대한 운영 경비를 감당할 수 없어 얼마 안 가 개점 휴업 상태에 놓이거나 문을 닫아엎는 소리가 나오는 등 극단적인 사태를 야기하기도 한다"며 "그 박물관이 보유하고 유물의 전반적인 성격이나 수량, 해당 사찰의 운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박물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단서 관련 법령 제정 기틀 다져야" 30곳중 6곳만 정상... 거의 구실 못해

고 있다"는 점이다.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문화재청과 문화관광부, (사)한국박물관협회가 공동 후원하는 '성보박물관 활성화 위한 정책 세미나'가 2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성보박물관들의 운영 마인드를 확대해 박물관들의 수준을 끌어올려 보자"는 취지다. 주제 발표를 맡은 최성은 덕성여대 교수는 14일 미리 공개한 발표

학술 담당 = 권형진 기자 jiny@buddhapia.com

사찰소장 불교 문화재 보존을 위해 94년부터 정부 지원으로 건립된 성보박물관은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경주 기림사 등을 포함해 30곳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운영되고 있는 성보박물관 가운데 학예 연구사 등 전문인력이 있는 곳은 통도사, 직지사, 송광사, 금산사, 수덕사, 율령사 등 6곳이다. 대부분은 전문인력이 없다는 말이다. 심지어 개관을 했지만 전시를 하지 않고 있거나 몇 년 동안 하자 보수공사만 하고 있는 곳도 있다. 성보박물관 관계자들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한 마디로 "잘하는 곳은 잘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오히려 골치거리가 되어 가

조선시대 건물터 발견

통일신라시대 불상으로 알려진 경주 안계리 석조여래좌상(경북 문화재자료 92호) 아래서 조선시대 사찰 건물터가 발견됨에 따라 이 불상이 다른 곳에서 옮겨져 온 것임이 밝혀졌다.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은 안계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발굴조사 결과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건물터와 연화대석 및 지대석, 조선시대 분청사기, 백자 등이 발견됐다고 최근 밝혔다. 조사단은 "함께 출토된 백자와 분청사기로 볼 때 건물터는 조선 중기 이후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상과 같은 시기인 통일신라시대 건물터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조선 중기 이후 불상을 다른 곳에서 옮겨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불상 아래 기단토에서 연화무늬의 하대석과 지대석 등이 출토된 점으로 미뤄 건물터는 불

"경주 안계리 석조여래좌상 조선중기 이후 옮겨온 듯"



경주 안계리 불상(경북 문화재자료 92호)아래서 발견된 조선시대 건물터 전경. 상을 봉안하기 위해 세워진 사찰 내 신라-고려시대 수막새 기와와 고려시대 토기 조각 등이 함께 출토됐다.

박해당 씨 주장

성리학만이 유일한 정통 학문으로 위세를 떨치던 조선시대에 불교는 어떻게 이룬적으로 대응했을까? 9월 열린 불교학연구회 10차 학술발표회에서 '조선시대 삼교론(三敎論)'을 발표한 박해당 서울대 규장각 특별연구원은 "유교 지식인들의 배불론(排佛論)에 맞서 조선불교는 서로 같고 다른 점을 찾아들이면서 공존할 것을

불논서(佛論書)인 <불씨잡변>이 공식적으로 유포된 이후, 그것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깔고 있다. 박 씨 말하면 유교에 대한 조선불교의 태도가 '불교 우월론'에서 '유불 일치론'으로 변화했다는 말이다. 이는 두 책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유교 경전인 <주역>에 대한 태도에서도 알 수 있다는 것이 박 씨의 설명이다. <현정론>이 불교의 인교응보설

조선시대 배불정책 대응

'불교 우위' 서 '儒佛일치'로

주장했다"고 밝혔다. 조선불교가 다른 전통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알 수 있는 삼교론(三敎論)을 다룬 유일한 저술인 <현정론>과 <유석질의론>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시도한 박 씨는 그러나 <현정론>이 불교만의 독자적 정체성을 드러내 우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었다(유석질의론)는 실질적으로 유불 일치론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 씨의 이러한 주장은 <현정론>이 여말 선초에 활약한 기화(己和, 1376-1433)의 저술인데 비해 <유석질의론>은 1465년 정도전의 배

을 옹호하기 위해 <주역>을 인용하고 있는 데 비해 <유석질의론>은 불교 교리와 <주역>이 얼마나 잘 들어맞는가를 보여주는 데 저술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박 씨는 <유석질의론>에서처럼 서로 다른 현상적인 가르침의 동일성을 강조할 경우 세력이 강한 전통에 흡수돼 정체성을 상실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교적 중효의 가치체계 속에 불교적 가치가 종속된 형태를 보이고 있는 조선 중기 이후의 불교가 바로 그 좋은 예"라고 말했다.

보물 369호 석남사 부도

낭공대사 사리탑

지금까지 그 주인공이 밝혀지지 않은 보물 369호 석남사 부도가 낭공대사 행적(832-916)의 사리를 봉안한 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재구 학예연구관은 최근 나온 <울산 연구>(울산대 박물관 3집)에 기고한 논문 '신라시대 울산지역의 승탑(僧塔)'에서 "낭공대사 탑비는 954년(고려 광종 5) 봉화의 태자사에 세워졌다가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돼 있으나 승탑의 존재는 묘연하다"며 "현재 경남 안양에 남아 있는 승탑(석남사 부도)이 낭공대사 행적의 승탑"이라고 주장했다.

석남사 부도의 주인공에 대해서는 석남사를 세운 도의국사의 사리탑이라는 설과 보조선사의 사리탑이라는 설이 있으나 관련 기록이 없어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었다. 소 연구관이 석남사 부도를 낭공대사 행적의 승탑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두 가지다. 우선 석남사 부도의 양식이 낭공대사 탑비가 조성된 954년과 비슷한 시기인 10세기 양식이라는 점이다. 석남사 부도는 880년 무렵 세워진 장흥 보림사의 보조선사상탑(보물 157호)의 양식을 계승했지만 시기는 훨씬 후대인 10세기 양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전 시대 탑보다 규모가 크면서도 보조선사탑보다는 규모가 축소된



낭공대사 행적의 승탑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보물 369호 석남사 부도.

점, 기단 폭이 좁아지고 상륜부가 강조된 점에서 이를 추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남아 있는 낭공대사 탑비의 비문에 낭공대사가 입적했다고 전하는 석남사사의 주변 형세가 기록되어 있는데, 석남사 부도가 있는 울산 안양의 가지산 석남사의 주변 형세와 일치한다는 점도 한 이유다. <중국 여지승람>을 보면 안양현조에 석남산이 소개돼 있지만 태자사와 낭공대사의 비가 있던 봉화현에는 석남산이란 지명이 없다. 소 연구관은 "낭공대사가 916년 입적한 뒤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탑비가 세워졌음을 볼 때 석남사 부도는 낭공대사 행적의 승탑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高僧 다시보기

휴정 스님과 조선불교 증흥



청허당 휴정 스님 영정 (통도사 성보박물관 소장)

청허당 휴정 스님(1520~1604)은 불교가 가장 탄압을 받았던 시기인 중종 15년 완산 최씨가문에서 태어나 이름을 운학(雲鶴), 호는 청허(淸虛), 백화도인, 서산대사라 했다.

승인장로(崇仁長老)에게 들어가서 1540년에 일선(一禪) 스님을 수계사로, 석희(石喜)를 증계사(證戒師)로, 영관(永官)을 전법사로 계를 받고 1549년(명종 3)에 나암보우(羅山普雨) 스님이 부활한 승과 첫 시험에 급제하여 후에 선교양종판사가 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선조는 의주로 피난중에 스님을 불러 국난대처에 대해 자문하였고, 이에 스님은 승군을 모집하여 호국승병활동을 전개하였다. 국가로부터 팔도선교도총섭이란 직함을 받았으나 곧 제자인 유정(兪正) 스님에게 물려주고 묘향산에서 머물렀다. 스님은 '국일도대선사선교도총섭부종수교보제등계존자'라는 시호를 받았다. 1604년 1월 묘향산 원적암에서 세수 85세 법랍 67세로 입적하였다. 스님은 생전에 정2품의 당상관 작위를 받고 그의

임란 일자 승병 일으켜 호국 선·교 대립때 선 우위체제로

영정이 해남 표충사, 밀양 표충사, 묘향산 수충사에 모셔져 지금까지 존송을 받고 있다. 이렇듯 스님의 호국승병활동은 세간사람들이 나서서 찾아야 할 호국의 발로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 깊고 두터운 4은(圓)을 갖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바닷대 하나, 한 벌의 옷으로 수행하면서 종풍을 확립하는데 애를 썼는데 이는 <청허당집> <선교결> <심법요초> <선교석> <선가귀감> <철선의> 등의 저술을 통해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스님은 한국불교사상 문제가 되어 왔던 선과 교의 대립 갈등문제를 사교입선(捨敎入禪)이라는 선 우위의 체제로 정립하였다. 이미 규봉종필(圭峰宗弼)의 <선원제집도서> 같은 저술류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지만 스님이 보다 쉬우면서도 간결하게 정리하였던 것이다. 또한 조주 스님의 무자화두를 들면서도 '닭이 일을 품고 고양이 쥐를 잡을 때처럼 절실하고 간절하게 하여야 한다'는 몽산덕이(夢山德異)나 '공부할 때 큰 믿음(伏信), 크게 분발(憤憤), 큰 의심(大疑)을 가져야 한다'는 고봉원묘(高峯元妙)의 선풍도 강조하였다. 이는 스님의 법조인 벉승 지엄(智嚴)이나 멀리는 조계종의 증흥조인 태고보우(太古普雨)의 선풍을 계승한 것이기도 하다. 스님의 이러한 선풍은 평양언기 사명유정 소요대능 정관(正觀)안 등 5대 문도를 비롯한 1000여명의 제자들이 부후 선수(善守)의 문도들과 더불어 하나의 종풍을 지닌 조선불교의 승단을 이루게 하였고 지금까지 불교계를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창원인규/동국대 강사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뵈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승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 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 각지의 많은 불자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께분량을 탕재로 하여(한박스 60봉) 한달분량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해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노비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 저려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게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흥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다)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다니 맑게 경계가 된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종대학교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장신 향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정강 대 전 집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승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시주금은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

중풍 귀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풍(風)! 예방이 제일입니다.

단, 2회 복용에 평생 뇌졸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예로부터 전래되어온 체질개선요 (두통), (마비), (저림), (심한 현기증), 법에 의한 (뇌졸중 예방 식품요법)을 10여 (구토), (노의이상)등이 나타나면 뇌졸중(중풍)의 위험 신호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관계기관이 제조 영안하기를 받았으며 인체에 유해한 불법 건강식품이나 다단계판매, 허위과장 광고등 위험판 매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최고 인기 식품입니다.』

· 본 식품요법 (1인 2회복용 : ₩120,000만원)이 귀하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즐시노”는 뇌졸중 예방요법의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은 일본의 규슈 가고시마현 구니와케시 지방에서 시작되어 (게이쇼엔) 양로원의 여러노인들이 비법을 증언하고 일본내에서 선풍적인 유행을 하였습니다. 이미 수만명의 사람들이 실험하였고, 일본 의학회와 국내 학회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사용하신분은 한사람도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분 : 관백액, 매실, 머위 등)

■ 현대에상책임보험 1억 가입
■ 복용 : 100일 후 발행시 1000% 보상

○ 상담문의 ☎ (02)3437-8282 ○

누리공방

불단 · 달집(천궁) 전문 공방입니다. 법상 · 경락등 박연호 합장

TEL : 031)543-7073 (공방)
H·P : 011)703-9130
FAX : 031)543-5727